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의 지도간부들로부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국방과학기술점령목표달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개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성탑재형 광학촬영장비들과 영상송신기를 비롯한 자료송신통신장비들, 각종 수감부 및 장치들의 개발 및 준비실태를 료해하시고 최근에 국가우주개발국이 진행한 중요시험결과들을 보고 받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에 진행한 중요시험들을 통하여 항공우주사진촬영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특성과 화상자료 전송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 중점목표달성에서 정찰위성개발의 몫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하시면서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전쟁대비능력을 높이는데서 정찰위성이 가지는 전략적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정보수집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권리와 국익수호이고 당당한 자위권 행사인 동시에 국위제고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대비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

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진행중에 있는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건설 문제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적군사행동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강화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5개년계획기간의 정찰위성개발, 운용과 관련한 전투적목표를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사정찰위성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5개년계획기간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국가우주개발국의 결심을 우리 당중앙은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주, 국방과학연구부문이 당중앙의 전략적기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학연구투쟁으로 총결기해나서고 결사분투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집단으로서의 영웅적기질을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장개건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현 상태에 대하여 료해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진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형운반로켓들을 발사할수 있게 발사장구역과 로켓제조로립 및 런동시험시설, 위성런동시험시설들을 개진확장하며 연료주입시설과 보급계통들을 증설하고 발사관제시설의 요소들과 주요기술초소들을 현대적으로 개진확장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서해위성발사장은 우주강국의 꿈을 펼쳐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이 깃들어있는 곳이라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국가가 두차례나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뜻깊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원대한

우주강국의 꿈과 포부가 씨앗처럼 묻혀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공화국의 국위에 맞게 먼 앞날을 내다보며 우주정복의 전초기지로, 출발선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우리 시대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책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전통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려

봄바람에 두그루의 전나무가 울려편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 있고 주작봉마루의 항일선열들이 바라보는 화성땅, 북받은 대지에 일떠설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보금자리의 첫 기둥으로 심어진 두그루의 전나무.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쳐 뿌리내리고 그이의 열렬한 조국애를 자랑분으로 하여 있가까이 있고 더욱 푸르른 두그루의 전나무를 보며 공화국인민은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립화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철세위인의 애국헌신의 려정을 다시금 되새긴다.

마음속에 애국을 묻으라

푸른 숲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후손대대에 물려줄 재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모든 산들을 수리화, 원립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 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 오셨다. 예로부터 산과 들에 나무가 울창하고 백화민밭하여 금수산으로 불리운 이 나라의 산림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황폐화된 지경에 이르러 된 것이 너무나 가슴아프시어 산림문제를 놓고는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산림현황을 제대로 두고서는 누구도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부할수 없으며 애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을 대할 때면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산림복구전투는 자연과의 전쟁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밝혀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온 나라를 수리화, 원립화하기 위한 애국헌신의 려정을 이어가셨다. 주체103(2014)년 11월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중앙양묘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세심한 보살핌속에 일어섰다고, 한층더욱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말씀하시었다. 천지개벽된 어느 한 인민군대의 양묘장을 찾으시어는 힘겨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바로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라고 못내 기뻐하시며 이 양묘장처럼 모든 도들에 지시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토지절약형, 로컬절약형의 양묘장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전국적으로 한해에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가까운 기간에 온 나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과 의지께서 우리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어야 한다. 그렇듯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애국심을 지니시고 울혜의 식수절

나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며 구멍이파기로부터 물주기, 흙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나무심기를 직접 하시었다. 나무를 심기 전에 깨끗한 랑심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먼저 묻으라! 그렇듯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애국심을 지니시고 울혜의 식수절

푸름으로 젊어지고 부강할 미래를 향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산림복구전투로 들끓고 있다. 어디에서나 나무를 심는다. 올해 식수절에만도 5만세대의 2단계건설이 한창인 평양시와 조선식농촌문명창조의 새로운 거점,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전변될 함경남도의 립포지구를 비롯한 공화국의 전역에서 수백만그루의 나무심기와 원립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기 양묘장들에서는 싸우는 전선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자연과의 전쟁을 벌리고있는 산림복구전투장들에 튼튼한 나무모들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여 표목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양묘장에서만도 필지별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수종별, 품종별로 나무모들의 영양관리, 비배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단위면적당 나무모생산량을 높여 산림복구전투장들에 보내 주고 있다. 《한그루 나무를 심어도 보람 뜻이》라는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공화국인민들은 결코 나무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고사시키려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묻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로 주변 산들에 나무숲이 우거진것을 보



락원한 사상리론의 저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체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주체적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이다. 청년문제가 민족자주위업수행의 운명, 사회주의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쾌히 밝히고 정력적인 령도로 이 땅위에 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년대를 펼쳐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에 발표한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든든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육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이며 길입성민족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이라고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든든히 육성하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도 명시하여주시었다. 주체101(2012)년 8월에는 전신시찰의 길에서 청년들에게 참가자들과 과 나라 청년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축하분도 보내주시었다. 이렇듯 청년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후배, 사회주의건설의 척후대, 민족부대로 내세우시는 그이의 청년중시사상은 공화국을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일떠세우고 그 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청년들이 발휘한 소행이라던 더 소중한 것이기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백두전구에서 영웅정년신화를 창조한 청년들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정년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이다》에서 저기 바라보이는 저 높이 쌓인 언덕은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성의 루적이며 1호발전소 언덕의 높이는 영웅청년들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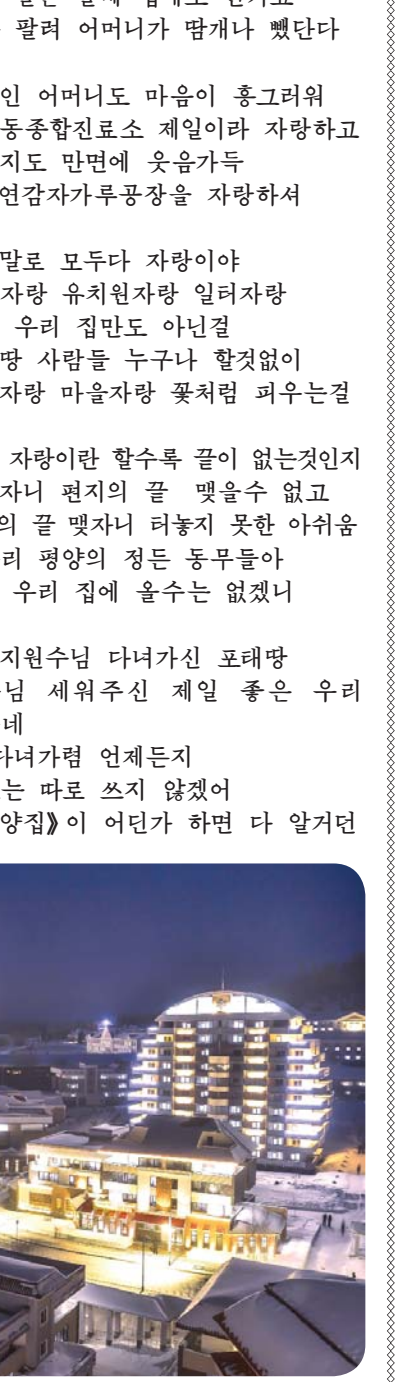
시조 사랑의 아우우에 꽃피는 일화 (1)

화가 김영일

선뜻 붓을 들수 없었다
나뎐 보면 해빛속에 빛나
백두대지의 꽃피는 선경이요
밤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듯
창가마다 불빛도 황홀해라
아름다운 이 전경 화폭에 담고져
포태동전망대에 오르니
선뜻 붓을 달릴수 없구나
아, 우리 원수님 바쳐오신 그 로고
눈가에 뜨기위 목이 매여와
산천경계 수려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하늘담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하였지만
백두의 정기어린 삼지연 이 땅에
한쪽의 명화란듯 솟아난 별천지
이는 원수님 펼쳐주신
눈부신 절경 기적의 선경
웅건한 포태산의 흰눈우에 솟아난



평양의 동무들에게
나의 원지방작속사첩에는
불꽃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그처럼 정겹게 바라보이며
원수님 환하게 미소를 짓으신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신...
아, 어머니를 따라
평양에서 살다 삼지연으로 온 소녀
그 포태 아이들은 자랑을 참지 못하는 법
포태산기슭의 아담한 살림집
이사는 첫날밤 평양의 동무들께
자랑의 편지
그리운 동무들 내 이야기 들어봐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우리 학교
전나무숲에 동화의 그림처럼 솟아
있단다
처음 들어서는 낯선 학교지만
왜 그런지 정이 록 드는게 아니겠니
교실창밖의 서리꽃 얼마나 고운지
몰라
이 누나에게 뒤질세라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도 자랑이야
놀이방 잠바 정말 멋지다고
어떤 날은 글씨 집에도 안가고
놀음 팔려 어머니가 땀과나 뺨단다
의사인 어머니도 마음이 흥그러워
포태동종합집요소 제일이라 자랑하고
아바지도 만면에 웃음기 가득
삼지연감자가루공장을 자랑하셔
그야말로 모두다 자랑이야
학교자랑 유치원자랑 일터자랑
하긴 우리 집만도 아닌걸
포태당 사람들 누구나 할것없이
새집자랑 마을자랑 꽃처럼 피우는걸
정말 자랑이란 할수록 끝이 없는것인지
터놓자니 편지의 끝 맺을수 없고
편지의 끝 맺자니 터놓지 못한 아쉬움
차라리 평양의 정은 동무들이
모두 우리 집에 올수는 없겠니
아버지원수님 다녀가신 포태당
원수님 세워주신 제일 좋은 우리
동네
꼭 다녀가람 언제든지
주소는 따로 쓰지 않겠어
《평양집》이 어딘가 하면 다 알거던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8)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온 겨레를 품어 안아 통일애국의 한걸음 이끌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1995년에 평양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용길녀사가 평양에 체류하고있던 어느날 그를 몸소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어버이수령님의 평전을 찾아 어려운 길을 와주어 고맙다고 하시면서 문목사도 오고 남방의 4천만이 온종로 알겠다고, 먼저 가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정말 이제 통일은 다된것같은 생각이 든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한 경제협력의 길을 개척한 정주영선생에게 늘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의 사업을 잘 도와주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후 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정주영선생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 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촬영이후 명예회장 선생이 불편해하니 앉아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고 또 이듬해는 상한 관절때문에 불편해하는데 치료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하시였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앉아있으라고 하시면서 두차례에 걸쳐 귀중한 보약과 송학수에뎀도 보내주시였다. 2001년 3월 그가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는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며 조의대표단을 파견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친절같은 동포애의 세계를 펼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포애, 인민의 세계에 끌려 남조선친도교 중앙본부 교령이었던 오익제선생,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이었던 량창영선생, 재미뉴기자 문명자선생, 재미동포 손원태선생과 흥동근목사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지침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에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나서는 원칙과 사상리론적기초,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하시였다. 여기에는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다.

민족대단결의 기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하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절세 위인의 통일 리념

주제67(1978)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장군께서는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재미 배달민족회 회장이었던 최덕신선생을 만나주시였다.

분별이 비록 외세에 의해 강요당할것이지만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문제라고, 우리는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노래 《우리는 하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주제 90(2001)년 7월 어느날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특별과업》을 주겠다고 하시고는 악보 하나를 내놓으시였다.

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공훈장창단(당시)에서 노래 《우리는 하나》를 합창으로 잘 형성하도록 하라고 이르시면서 누구나 다 화회의 감정을 가지고 쉽게 부를수 있는 통속적인 노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국해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 (2015년 8월)



민족우선의 립장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민족우선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 큼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우선의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당연하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분별과 대결속에 산다는것은 민족적수치이고 비극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통일을 결실히 바라는 사람도, 통일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1)

자본주의 이역땅에서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조국의 흥성번영과 갈라진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 한덕수의 장의 이름과 공적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다.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울려 퍼진 3.1의 독립만세소리가 그의 뇌리에 반일애국의를 싹틔운 계기로 되였다.

죽음의 고역장이었던 단나차골공사장에서 그는 망국노의 설움이 어쩔것인가를 빼어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디나 다 인간생 지옥이었다. 그는 육신의 고통보다 지쳐들 품이 없는 망국노의 처지를 한탄하며 비분의 눈물을 뿌리었다.

한덕수선생

두산바람이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투쟁투쟁의 빛나는 전과에 대한 소식은 절망의 심연에서 믿음하는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에 일무의 희망과 재생의 신념을 안겨준 동태였다.

한덕수는 민족의 영웅을 맞이한 화회의 격정에 넘쳐 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심심과 락관을 안겨주며 반일선전을 힘있게 벌렸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평안남도 《반탁》수령을 반대배격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해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하지만 조선에 민주주의립시정부를 수립하며 조선이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 소련, 미국, 영국, 중국(국민당중국) 4개국에 5년내에 립시적인 기한으로 후견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전명진

본사기자 주일봉

본사기자 박철남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김영진

뜻깊게 보낸 3.8국제부녀절



혈분의 자옥을 남긴 지사들

일제의 조선군대 강제해산에 항거하여

1907년 8월 간악한 일제에 의해 조선군대가 강압적으로 해산되었을 때였다. 《참령님이 자결하였다》 조선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시위대 보병 제1연대 1대대장 참령 박성환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속에 어찌할 줄 몰라하는 군사들 안에 나서서 결사전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시위대 제1대대 부위로 있던 남상덕이었다. 그의 호소에 1 000여명의 군인들이 제각기 군영으로 달려가 총을 잡고 호응해나섰다. 남상덕의 지휘밑에 병사들은 일본교관들을 처단하고 병영을 포위하고있던 적들을 맞아 아 총격전으로 병영문을 돌파한 다음 거리로 뿔쳐나와 일제놈들을 보는 족족 쏘아눅혔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군인들이 시내에 나서자 로동자, 청년학생, 상인 지어는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모두가 합류하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은 일제놈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리었으며 싸우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육박전으로 원수들을 무찔렀다.

이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적 아간의 산병전이 벌어졌으며 다음날 날이 밝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폭동을 지원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고 녀학생들과 간호원들은 적탄이 우박치는 속을 뚫고다니며 부상병들을 구원하였다. 이에 고무된 폭동군인들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제놈들과 싸우는 피의 환경에서 희생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폭동을 지원하던 남상덕이 적탄에 맞아 쓰러지자 권기홍이 계속 지휘하였으며 군인들은 쓰러진 전수들의 시체를 넘어 적진으로 육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일제놈들이 차지한 남대문과 서소문보루



일제에 의하여 강제해산당한 조선군대

은을 내는 농업과학기술보급홈페이지

《황금별》

공화국에서 농업과학기술보급홈페이지 《황금별》을 통하여 앞선 영농기술과 함께 우수한 단위들의 경험을 터득하고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는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안악군 안악농장에서는 《황금별》홈페이지를 리



런어대문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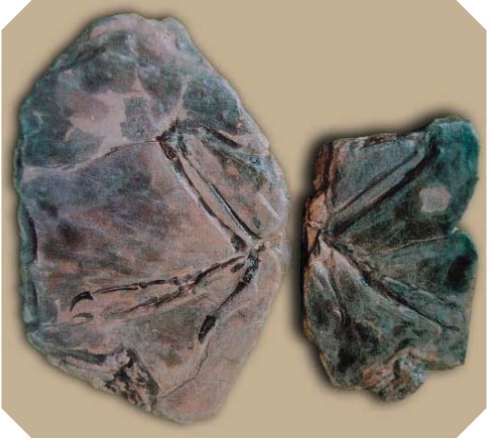
조미료에 재운 런어살편을 기름에 튀기고 볶은 다음 즙을 쳐서 만든 요리이다. 고기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특히 알은 고급식으로 으려 쓰인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런어살편 200g일 때 붉은 사자고추 10g, 푸른 사자고추 10g, 양파 10g, 물농마 20g, 다진 파 10g, 참깨 1g, 참기름 0.5g, 식초 5g, 사랑가루 3g, 소금 2g, 맛내기 1g, 후추가루 0.5g, 기름 5g을 준비한다. 런어살편은 2cm 크기의 정방형으로 썰어 다진 파, 참깨, 맛내기, 후추가루, 소금, 참기름을 두르고 재운다. 붉은 사자고추와 푸른 사자고추는 씨를 털어내고 편으로 썬다. 양파도 편으로 썬다. 재운 런어살편을 기름에 튀겨 편으로 썬 붉은 사자고추, 푸른 사자고추, 양파와 함께 살짝 볶는다. 여기에 사랑가루와 식초, 물농마를 섞어 만든 즙을 쳐서 그릇에 담아 낸다. 이렇게 하면 먹음직스러운 런어대문볶음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맛모두 두 깍쟁이

청주깍쟁이가 소, 개, 닭을 각각 한마리씩 끌고 충주깍쟁이를 찾아갔다. 청주깍쟁이가 자기 이름을 쓴 종이장을 들이미니 충주깍쟁이는 당신이 보자마자 얼른 저기에 풀을 발라 자기 집의 찢어진 창문에 붙이고 나서 물었다. 《어인 일로 이렇게 찾았습니까?》 청주깍쟁이: 《당신의 깍쟁이씨가 여간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이미 써먹고 버린 숭씨라도 좀 배울가 해서 왔습니다.》 충주깍쟁이: 《그런데 저 소, 개, 닭은 무엇에 쓰려는 것입니까?》 청주깍쟁이: 《소는 집을

조선시조새화석

조선시조새화석은 신의주시에 분포된 중생대 유라기 상생층인 신의주통의 3번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새의 조상이다. 지금까지로부터 약 1억 5천만년전의 지층에서 나왔다. 조선시조새의 화석은 대가리뼈와 목뼈의 일부 그리고 한쪽날개뼈와 날개깃만이 보존되어있다. 대가리는 표본에서 32X15mm의 크기로 뼈만이 나타나있는데 눈부위와 이발이 비교적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있다. 목은 그 일부만이 화석으로 보존되어 있고 마디뼈는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 한쪽날개뼈가 잘 보존되어 있는 데 날개뼈의 상박골과 척골, 요골, 장골, 지골이 아주 명확하다. 또한 날개깃 자리가 희미하게 보존되어있다. 본사기자



발갈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씨도 잘 썼지만 특히 그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화가인 윤두서의 그림이다. 그림가운데에는 야산 밑에서 소를 부리며 부지런히 밭을 가는 농민을 그렸으며 오른쪽 아래에는 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하고 팔배개하고 누운 소들이군아이를 그렸다. 당시 도포자락을 날리며 동자를 데리고 다니는 인물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던것과는 달리 농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인물풍속화인것으로 하여 이 그림은 특별히 부각된다. 본사기자



무릎관절증이 있을 때 주의할 점

◇ 무릎을 심하게 굽히고 오래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 ◇ 무릎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 그러자면 비만을 없애는것이 중요하다. ◇ 앉았거나 서있다가 걸으려고 할 때에는 걸음을 떼기 전에 무릎운동을 여러번 하는것이 좋다. ◇ 변형성무릎관절증이 있을 때에는 다리근육의 힘을 세게 하는 운동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반듯이 누워서 무릎관절을 곧게 펴고 다리를 들었던 다내렸다는 운동은 30분씩 하루에 2~3번 한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관절을 완전히 펴는 운동을 한다. 겨울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극소에 열감이 있고 관절안에 물이 차서 무릎이 부어오르면 물이 아파날 때에는 안정한 수염을 착용하거나 찬바람이 10분정도씩 하루 3~4번 아픈 부위에 대고 문지르는데 2~3일동안 반복한다. 금성염증이 없다면 더운찜질을 한다. 본사기자

백의종군 원말이나 (2) 그림 채대성

그해 1월, 리순신은 사복시(궁중에서 쓰는 말과 마구 말을 말아보는 관청)의 주부(비서)가 되자 밤낮으로 수직을 세우는 한편 북병사에게 군사를 보충해줄것을 청원하였다. 《지금 목돈에는 곡식이 잘되어 군량미로 쓰기에 충분할듯하나 본도와 멀리 떨어져있고 군사가 적으므로 오랑캐의 포박을 당할가 두렵소이다. 청진대 군사수요를 늘여주시 바랍니다.》 리순신의 이러한 청원을 받은 북병사 리일은 시꺼먼 채수업을 호기있게 받아들여 리순신은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8월(음력)도 거의 지나갈무렵 그는 선손을 써서 목돈도의 곡식을 배어들이기로 결심하였다. 리순신이 자옥히 긴 어느날 아침이었다. 리순신은 경비서는 군사 몇명만 남기고 나머지 지는 모두 주변마을사람들과 함께 목돈도에 들어가서 곡식을 배어들이게 하였다. 군사들과 마을사람들이 떠난 후 한동안 지났을 때 목책문을 지키고있던 군사가 문득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오랑캐! 오랑캐! 무리가 쳐들어온다!》 리순신은 군관 리운룡과 함께 급히 밖으로 나가 적의 동태를 살폈다. 목책을 에워싸며 접근하는 오랑캐군사들의 모습이 걸리기 시작한 안개속으로 희미하게 안겨왔다. 붉은 옷을 입은 놈들 서너명은 말을 타고 선두에서 호기있게 달려오고있었다. 리순신은 문을 굳게 닫고 목책문으로 활을 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맨앞의 놈을 쏘아떨어주었다. 그뒤를 이어 군관 리운룡

끼고 빠져 나가 적의 동태를 살폈다. 목책을 에워싸며 접근하는 오랑캐군사들의 모습이 걸리기 시작한 안개속으로 희미하게 안겨왔다. 붉은 옷을 입은 놈들 서너명은 말을 타고 선두에서 호기있게 달려오고있었다. 리순신은 문을 굳게 닫고 목책문으로 활을 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맨앞의 놈을 쏘아떨어주었다. 그뒤를 이어 군관 리운룡



바람에 미쳐 손발도 놀러지지 못하고 붙잡혔던 것이다. 수호장 오형, 감관 임경변 등은 맨손으로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날 리순신은 왼쪽다리에 화살을 맞았으나 누구도 크게 살충을 뽑아내지 못하였다. 그것을 본 리순신은 열명도 되나마나한 군사들을 이